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2-8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이란 성탄절 이전 4째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절기로 영어로는 Advent (오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2천년전 초대교회때는 주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 즉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인사했고 약속하면서도 포옹하면서도 핍박의 시기에 숨죽이며 귀속말로도 마라나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재림의 교리가 있으나 마나한 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재림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먼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영원하고 영적인 구원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롬 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요일 4:10)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헬 유양겔리온 곧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옛날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에서 본국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국민에게 이겼다 이 짧은 한 마디가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고전 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영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서는 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

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부활 즉 다시 살아 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가지 종류의 종교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가지 종류의 종교를 통하여 바른 믿음의 노선을 정해야 합니다

신비주의적 종교

성도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좋아하지만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신비주의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신비로 가득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 된 것이 신비입니다. 부활사건, 물위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 나홀만에 살아난 사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신비를 빼버리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비를 믿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비를 믿는 것과 신비주의자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비를 체험한 뒤 모세의 초막과 엘리야의 초막과 주님을 초막을 나란히 짓자고 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등하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신 예수님과 종을 동등한 위치에 둔다는 것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뒤 예수님과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 말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회로 '재림 주'라 하거나 '어린양' 혹은 신천지의 이만희와 같이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며 자기를 예수님과 동격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여 이를 미끼로 사람들을 미혹케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제자들과 같이 '여기가 종사오니'하면서 신비한 체험의 장소에 머물러고 합니다. 생활 전체를 구름 위에 떠서 이 세상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일을 팽겨치고 산속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산속으로 들어오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말세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신비주의자들도 늘어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므로 우리는 마땅히 신비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주의적 종교

현대주의자나 신신학자들은 '신은 죽었다'고 외칩니다. 죽은 신에게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가르치는 유럽교회들이 거의 죽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지 않으니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음란하고 절망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주의자와 신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적도 없고 체험도 없으며 성령의 역사도 없이 인간적인 도덕과 윤리만을 가르치며 신학적인 분쟁과 논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교회에 와서 새 삶을 갖기 원하나 교회가 귀신을 쫓아내고 삶과 소망과 치료와 부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무력하니 교회 가는 사람들이 무력하고 사회에 손가락질 받게 되고 젊은 세대에게 교회가 외면당하고 교회들이 점점 비어 빈 건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철학적 문학적 도덕적 강의만 있고 논쟁만 있지 마음의 갈급함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성령충만과 중생과 소망은 없이 시들어진 나뭇잎이 떨어지듯 사람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산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는 신비주의자의 종교도 아니며 산 아래서 이론만 전개하며 실제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기력한 현대주의자의 종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난 뒤에 현실로 돌아와 아버지는 직장과 가정으로 학생은 학교로 각자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비록 사망과 티끌과 눈물과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이지만 세상에 돌아와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죽음 대신에 생명을 얻게 되며 어둠 대신에 빛을 얻게 되고 질병 대신에 건강과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져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신비를 배제하거나 현실 세계를 무시하는 현대주의자나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자들이 주 앞에 나아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막 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강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으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충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날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도와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데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자 내 힘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내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겨보자'라고 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우리 곁에 보내셨으니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고 인정하며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눔의 시간

1.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스스로 구원과 복음을 정의 내려보고 목원들과 함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기독교와 다른 종교(신비주의적 종교, 현대주의적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과 그 특성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 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3. 기독교는 성령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우리가 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법이 나의 신앙과 삶 안에 역사하여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서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